



#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 제27대 공군전우회장·제8대 공군발전협회장에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 취임



공군전우회는 4월 14일 공군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

이사회 개최 선행사항인 정책자문회의는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수칙에 따라 각종 집회나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당초 3월 11일에서 3월 25일로 연기하였으나 당일 개최가 어려워 On Line 으로 회무보고를 하고, 일부 안전인 차기회장 추천건은 3월 23일 전화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예 대장, 공사 20기)을 차기회장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 행사도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4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일정과 연기된 일정에도 개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참석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행사를 간소화하여 14일 개최했다.

먼저 정기 이사회에서는 이한호 회장의 인사말과 회무보고, 심의의결 안건으로 "2019년도 수지 결산안"과 "2020년도 사업 계획/예산안" 심의의결 및 차기회장으로 정책자문위에서 추천한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김영근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차기회장 선임안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이후 이임 이한호 회장의 이임사, 전우회 기 이양, 신임 김성일 회장의 취임사와 공군가계장을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신임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범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우리 공군력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으며,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복지향상, 그리고 국가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일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일부로 제27대 공군전우회장과 제8대 공군발전협회장으로 취임한 예비역 공군대장 김성일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에 따라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어 여러분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군전우회장으로 선임해주신 정책자문 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큰 영예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해 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가져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전우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한 전우회 회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고 명실공히 이제 모든 공군 예비역의 대표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이한호 회장님은 지난 2년 동안 전우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대내외적인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 확대, 안정적 재정확보 및 제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셨으며, 우리 공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군발전협회의 연구기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한호 회장님의 업적에 뜨거운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안보상황은 겉보기에는 안정되고 평온하게 보이지만, 내실은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간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 시키고 있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해에는 신형 지대지 유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와 같은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금년 3월에는 네 번에 걸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 특히 우리공군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국내 상황도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경기악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안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심각한 형국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전우회는 안보전문 집단으로서 범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전쟁억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공군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님들의 힘을 모으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우회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며, 공군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우리 공군인들의 소망인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우회 산하단체와 지부/지회 활성화 적극지원 활동 전개 및 전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친목도모와 복지향상 그리고 국가 안보단체로서 공군전우회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도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신 이한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 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김 성 일



### 공군발전협회 2020년도 정기 대의원회의



공군발전협회 이한호 회장은 2월12일 공군호텔에서 협회 대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진행은 성원보고, 국민의례, 회장 인사말, 상정안건보고, 회무/ 감사보고에 이어 심의 의결사항 및 협회 학술지를 등재지로 등록하기 위한 토의와 등재지 등록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회무보고에서는 2019년도 협회 일반현황과 사업 실적을, 의결사항으로는 2019년도 결산(안),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연구윤리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그리고 협회 학술지 등재지 등록을 위한 추진위원장에는 김경순(한국지정학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가 부위원장에 조홍제(예 소령, 학사 84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원)박사가 각각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이 회장은 “공군발전협회 창설 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안보학술회의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용역과제 수주 등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발전협회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1월의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중위 현양행사 참석

본회 이한호 회장과 임직원 일행은 1월 9일 전쟁기념관 주최의 2020년 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이일영 공군중위 현양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쟁기념관/ 보훈처/안동시 대표, 김두만 6.25출격조종사 회장, 3여단 장병 및 유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본회 이회장은 공군예비역을 대표하여 헌화 및 분향했다.

이 중위는 1928년 8월 경북안동에서 태어나 48년9월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한후 49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조종사로 활약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L-4연락기로 적정 정찰, 연락비행, 전단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50년 9월 대구영천지구 일원에 잠복하고 있던 200명의 적 병력을 격멸하고, 아군 진지를 향해 은밀히 이동 중이던 300여명의 적 상항을 지상군에 게 알려



줌으로써 영천지구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51년 9월 10일 F-51 전투기 전환훈련을 마치고 제1전투비행단에 배속된 이 소위(당시 계급)는 10월 25일부터 F-51 전투기 조종사로 총 42회를 출격하며 적 보급선 차단, 잔당 격멸 등 각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적 전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52년 1월 9일 강원 금성 북방 창도리 상공에서 적의 병커와 대공포 진지를 공격하던 중 안타깝게도 대공포에 피탄 되자 기체를 적진으로 돌진해 장렬히 순화했다.//

### 공군발전협회 연구윤리, 학술지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공군발전협회는 학술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회 학술지 ‘항공우주력연구’를 장차 등재학술지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명확한 연구윤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각종 학술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리고 학술지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은 학술지인 ‘항공우주력연구’에 기고된 논문

의 심사와 편집을 위한 규정으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술지 심사규정’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기준 및 선정, 논문당 3인 이상 심사위원 배정 등 심사절차와 심사원칙을 명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학술지 편집규정’은 편집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논문 작성방법을 ‘원고 제출 및 집필요령’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논문 기고자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 2020 예비역 정책설명회 참석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전우회·공군 사관학교총동창회·학사장교회·전공상유공자회·인터넷전우회 회원 등 예비역 약 200여명은 1월14일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의 2020년 예비역 정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역들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함께 신규도입 전력화 및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 공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군 70주년에 거둔 의미 있는 성과는 모든 선배들의 피땀으로 마련한 기틀위에서 후배들이 소임을 완수한 결과”라며 “창군 100주년을 나아가는 길에 여러 난관이 많겠지만 예비역과 현역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한호 공군전우회장은 예비역을 대표하여 “창군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우리공군은 한세대 더 앞서가는 첨단 공군으로 성장하여 획기적인 전투력을 갖추었으나 아직 우리의 안보상황은 만만치 않다”며 “우리 군이 나가야 할 길은 정치적 문제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적정을 살피면서 즉각 응징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공군 2사총동문화 신임 회장단 내방

본회 산하단체인 공군 2사관학교 총동문화(회장 안화중) 신임 회장단 일행 4명이 1월 29일 본회를 방문하여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이한호 회장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신임 안 회장은 2사 총동문화 현황 및 활동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공군전우회 산하단체 일원으로서 전우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앞장서고, 2사총동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이 회장은 “신임회장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동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사 총동문화는 2008년 9월 창립되어 2009년 12월 13일 본회 산하단체로 공식 등록하였고, 현재 약 1,1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제6대 신임 회장단은 지난 1월1일부터 취임하여 앞으로 2년간 총동문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 공군항공과학고 49기 졸업 및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는 3월2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48기 공군항공과학고(이하 항공과고)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재용 신임하사에게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 상장과 부상 및 메달을 전수했다.

이날 보라매상 시상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회 임원이 직접참석하지 못하고 교육사에 위임하여 수여됐다.

이날 공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임관자가족과 친지, 교육사 장병들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9기 항공과고 졸업 및 임관식’에는 145명의 신임 부사관들이 지난 2017



년 항공과고에 입학해 고등학교 정규과정은 물론이고, 항공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임관식은 졸업증서 수여와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수여, 시상, 임관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 Aerospace conference 전시회 운영 합의서 체결

이한호 공군발전협회장과 이종호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이하 전발단) 그리고 배순근(사) 한국국방 MICE 연구원장(이하 DMI)은 3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공군이 주최하는 Aerospace Conference와 연계된 전시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서에는 전발단은 Aerospace Conference를 주최 및 연계된 전시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군발전협회와 DMI는



전시회 홍보 및 참가 기관, 업체 모집 업무를 주관하되, 최종 선정은 전발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 공사 68기 졸업 및 임관식

공군사관학교 제68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3월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군 수탁생도 4명을 포함한 사관생도 158명(남 148명, 여 10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154명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부착했다.



이날 공사 졸업 및 임관식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등의 순서로 약 60분간 이어졌다. 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학부모 초청없이 필수 군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축사에서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면서 "국방개혁 2.0 '스마트 공군' 전략을 통해 우리 공군의 안보 역량을

공사는 이날 행사 전 교내 영원한 빛 추모비에 헌화하며 6·25전쟁 70주년을 되새기고, 영공수호를 위해 전사·순직한 공중근무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본 행사에서는 태극기 공중강하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군 선배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 '2019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

공군은 2월 3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9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거행했다.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은 지난 2001년 처음 시행돼 올해 19회째를 맞았으며, 평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자세로 공군의 핵심가치를 구현해 온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신지식·정보화특별 등 7개 부문에서 단체 9개 팀과 개인 1명이 선정됐다.

문화 부문에는 공군군악대가, 협력 부문에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지식·정보화 부문에는 17전투비행단 김이섭 하사가 수상했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17전투비행단 151전투비행대와 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가, 조직운영 발전과 희생·봉사 부문에는 6탐색구조전대가, 체육·

이 밖에 특별 부문에서는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공군19전비, 공격편대군 훈련

공군19전투비행단(19전비)은 4월8일 작전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차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다.



공격편대군 훈련은 전투기 편대별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적 핵심 표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 훈련에는 19전비 소속 KF-16 전투기를 비롯해 2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다.

사들의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전자전 훈련장비(EWTS·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를 이용한 가상의 적 방공망을 설정했다. 임무조종사들은 적기와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숙달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훈련에서는 가상의 적 도발 징후가 감지되자 임무조종사들이 즉각 비상출격해 공격편대군을 이뤄 적 역할의 전투기 편대를 공대공 무장으로 신속히 제압했다.

이어 공대지 무장을 통해 적진의 지대공 전력을 파괴하고 적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며 도발을 억제했다.

특히 19전비는 이번 훈련에서 임무조종

### 공군1전비, 올해 첫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4월7일 20-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고 20명의 신입조종사를 배출했다.



이들 신입조종사들은 지난 약 1년 8개월간 입문-기본-고등 비행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며 조종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 조종능력을 갖추고 이날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었다.

수행하게 된다.

신입조종사들은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RT·Combat Readiness Training)을 거쳐 최일선 비행대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이날 수료식은 조국 영공수호에 헌신한 선배 조종사를 추모하는 명예의 단상 의식을 시작으로 수료증서 수여, 성적 우수자 시상, 빨간 마후라 및 조종 흉장 수여, 군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공군8전비 203대대, 5만시간 무사고 기록

공군8전투비행단(8전비)은 1월8일 기지강당에서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203전투비행대대(203대대) 5만 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록달성 축하 행사 및 부대원 격려,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했다.



203대대의 이번 성과는 지난 2003년 9월 20일 시작해 지난해 11월 6일까지 약 16년 2개월에 걸쳐 달성됐다. 특히 FA-50 항공기 운용을 통해 달성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국산 항공기의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공군 제4기 학군부사관 임관식

공군 제4기 학군부사관 임관식이 3월2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됐다.



공군 부사관학군단은 항공기술 부사관 양성을 위해 2015년 대구 영진전문대학에 창설됐으며, 올해에는 33명의 신입 부사관이 탄생했다.

하며 자치근무 등을 운영해 공군 간부가 가져야 할 책임의식과 리더십을 배양했다.//

이들은 교육사에서 주관하는 9주간의 동·하계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공군 일선 부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또 대학 재학 기간 중 전원 기숙사 생활을

### 공군 '하늘이' 20년 만에 재탄생

공군 대표 캐릭터 '하늘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공군은 1월16일 "지난 20년간 활용된 하늘이의 개선 버전인 '리뉴얼 하늘이'를 온라인에 최초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트렌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총 8종의 시안을 만들었고, 강인함·친근함·특별함을 콘셉트로 리뉴얼 하늘이를 제작했다.

1999년 공군 창군 50주년을 맞아 제작된 하늘이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친근하면서 강인한 공군 이미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데 기여했다. 공군은 이후 최신 트렌드와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창군 70주년을 기념해 리뉴얼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제작된 리뉴얼 하늘이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공군 캐릭터 제작 매뉴얼'은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및 공군 공감 블로그(afpl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최종 단축했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다.

국방위는 2월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병역법 18조에는 육군·해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 해군의 복무기간을 26개월, 공군을 2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나 병지원율의 저하로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한다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마련됐다.//



### 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DC 회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의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재강조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



의 핵심축임을 재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 제 101주년 3·1 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3월1일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다"라며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자.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자"고 부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



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광복회장 및 지회장, 배화여고 학생 등 50여 명만 참석하는 최소 규모로 치러졌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4월11일 "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겠다고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어울림쉼터에서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를 주제로 진행된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는 2021년 완공될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영원히 새길 것"이라며



"정부는 3·1 독립운동의 유산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오늘에 살아있게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21년 말 완공 및 개관 예정으로 특정 영웅의 공간이 아닌 독립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공간, 이념과 지위·신분·성별에 구애 없는 통합과 화합의 공간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 '천리안위성 2B호' 발사 성공

2월19일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한국은 한 지역의 대기와 해양 환경 변화를 계속 관측하는 정지궤도위성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3만6000km 상공의 일정한 궤도에서 지구 자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B는 환경탐재체를 가진 첫 정지궤도 위성이다.

늘 한반도 상공에서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천리안 2B에는 환경 관측 센서인 젠스(GEMS)가 탑재돼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오존 등 20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하루 8번 관측할 수 있다. 관측 데이터도 13종에서 26종으로 두 배 늘었다. 저염분수나 해양오염물의 이동 양상도 마치 동영상을 보듯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어장을 탐색하거나 양식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양탐재체에는 하루 한 번 지구 전역(전구)을 관측하는 기능이 있어 수온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오르내리는 엘니뇨나 라니냐 등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우주로 간 천리안 2B호는 본궤도에 올라 수 개월간 제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돼야 최종적으로 '개발 성공' 판정을 받게 된다. 천리안 2B호는 2월19일 오전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발사 37분 뒤인 오전 7시55분 호주 아사라가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1월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어 운영 계획·세칙, 사업종합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 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정부 위원 14명, 참전용사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1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3개 분과(기억·함께·평화)로 나뉘어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감사의 마음을 일사화하고, 국민 통합과 평화 분위기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억' 분과는 정부 기념식, 참전국 현지 위로연, 전자자 유해 봉환식 등 감사 행사를 담당한다. '함께' 분과는 각종 문화행사와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평화' 분과는 참전 22개국 보훈부 장관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행사를 맡는다.//

### 국방부 자문위원 34명 위촉

국방부는 2월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국방개혁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방개혁 자문위원회는 군(軍) 구조·문화, 방위사업,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분과로 나뉘어 운영한다. 위원장은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예 준장, 공사18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자문위원들은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행사에서 국방부 담당자와 자문위원들은 국방개혁 2.0 추진 원년이었던 2019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기술집

약형 군 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 본격 시행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의 전환 기반 마련 △병영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획기적인 방위사업개혁 추진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평화·혁신·공정·포용'이라는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국방개혁 2.0 추동력 유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임관식

국군간호사관학교는 3월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60기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을 열었다. 2016년 입학한 60기 신입 장교 75명은 4년 동안 간호사관생도로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2일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앞으로 이들은 육·해·공군에 각각 소속돼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로서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족과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교내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 간호장교들은 국가와 국



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장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대구로 이동해 국군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임무에 투입됐다.//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결정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 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1월29일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 시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

를,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수립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월21일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았다.//